

“자연이 건네는 작은 위로, 일상 속 작은 심 땀으면”



데뷔 18년 만에 첫 개인전을 여는 김선순 작가

서양화가 김선순 첫 개인전 ‘자연을 담다’… 5일까지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소소한 삶 속 스치듯 마주한四季의 색깔 따스하게 풀어내
감성·정서로 녹여낸 대자연의 강한 생명력, 진한 울림 선사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연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평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양화가 김선순(61) 작가가 데뷔 18년 만에 첫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는 오는 5일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자연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 작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전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며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떨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자연을 주제로 한 서양화 작품 37점이 출품됐다. 일상 속 소소한 풍경부터 여행지에서 마주한 인상적인 장면까지,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화폭에 담아낸 작

품들이다.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의 색깔과 분위기를 따스하게 풀어낸 그림들이 보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특히 담양 죽녹원의 대나무 숲을 그린 작품이 눈길을 끈다.

작가는 “대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정말 아름다웠다”며 “그림을 보는 관람객들이 마치 그 숲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면 속 대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풍경이다.

초여름 정원을 수놓은 장미, 해를 머금은 해바라기, 담벼락 앞 구절초,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마중 나오는 풍경 등은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정서를 아우르며 감상자에게 다가간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이 오래도록 남고, 그런 장면들이 그



‘어느 여름날’

림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시는 10년 전 작업부터 최근 작품까지 작가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중 10여 점은 근작으로, 자연에 대한 작가의 시선과 감성이 어떻게 무르익어왔는지 보여준다.

김 작가는 2006년 등단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한국여성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미술공모전과 경찰문화대전 등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아왔다. 그동안 여성작가 그룹전에도 참여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다져왔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욱 깊이



‘죽녹원’

있는 회화 세계를 펼쳐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해바라기를 집중적으로 그려 보고 싶어요. 해바라기에는 밝은 에너지와 함께 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서적인 울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저만의 감성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최명진기자

‘웃음·감동’, 중학생 관객도 빠져든 ‘사랑의 묘약’

리/뷰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해설·한국어가사로 진입장벽 낮춘 무대 호평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 가족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관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날 공연은 용봉중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으로 이뤄져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층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사랑의 묘약’은 평범한 청년 네모리노가 부잣집 아가씨 아다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묘약’을 산 뒤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희극 오페라다.

이날 공연은 전막 대신 주요 장면 중심으로 구성해 짧고 강렬한 몰입감을 전했다.

장면마다 전문 해설자가 무대에 올라 배경과 흐름을 설명하며 오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탈리아어 원어에 더해 한국어로 개사된 노래를 함께 들려주는 방식으로 관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달 3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 가족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네모리노가 부르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장면에선 익숙한 선율과 절절한 감정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카메라 타전남의 오케스트라 연주 역시 배우들의 열창과 어우러져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최절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앞으로도 관객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오페라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에 더욱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선’으로 풀어낸 삶의 감정선

광주문화재단 전시공간지원사업 첫 전시…윤부열 ‘Life: Time-Line’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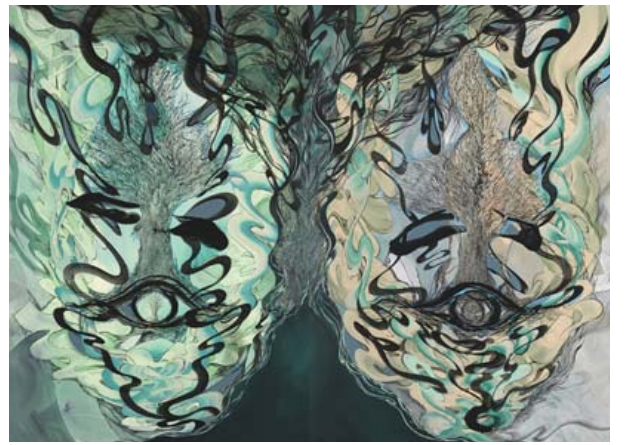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이 2025년 ‘전시공간지원사업’의 첫 전시로 윤부열 작가의 개인전 ‘Life: Time-Line’을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5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공간지원사업’은 지역 시각예술인을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전시는 그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인전 ‘Life: Time-Line’은 불면증, 죽음, 인간관계, 가족, 버팀목, 행복, 향 등 인간 내면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삶의 감정과 단면을 섬세한 ‘선’의 조형 언어로 표현한다.

작가는 “선은 가장 단순하지만 감정을 담고



윤부열 작

공감을 이끌어내는 예술적인 매체”라며 “삶을 다룬 미술이 내게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